홍천실버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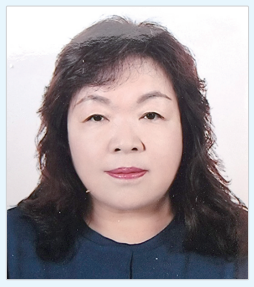
2022년 3월 (제94호)

발 행 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 행 인 현 윤 재
주 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 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유관단체

화촌면 새마을부녀회 활동

"코로나 속에서 새봄(봄꽃) 맞이 준비"



◇최은순 회장



◇오명숙 총무

홍천군 화촌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은순)는 2월 15일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화촌면 18개리 새마을부녀회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전년도 사업평가와 2022년 사업계획이 논의되었다.

최은순 회장(63세)은 인사말을 통해 "오미크론 창궐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각종 새마을 봉사로 헌신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으며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해 온 지난한 해가 즐거웠다. 금년에는 더욱 활기찬 봉사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현안사항 토의로 진행됐다.

새마을장학금 신청, 회비납부(월 1만원), 새마을사무실 마련 추진(화촌면 다목적 식당 옆), 총무교육 계획(3월 중)이 공지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중점사업이 논의 되었는데, 취약계층 돕기 사업으로 '환경정리해 드리기' '화목용 땔감 정리해 드리기' '독거어르신 리모컨설치 사업 시행 '등이 결정됐다.

또한, 전년도 연계사업으로 '농업용 비닐 수거사업' '농약병 수거사업'을 마을이장과 함께 협의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화촌면 새마을부녀회는 화촌면 18개리 354 명으로 조직되었고 65세 이상 회원도 130여 명이나 되는데 어르신 회원들의 참여 열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조회분, 김영심, 김경회, 김광숙, 조보연 회장 등 역대 회장들이 본 회를 이끌어 왔다. 현재 각 리별 회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는데, 송정리 김영순, 굴운리 한명자, 구성포1리 안미자, 구성포2리 김정옥, 풍천1리 송은숙, 풍천2리 김삼례, 외삼포1리 김승례, 외삼포2리 용미란, 내삼포리 이춘자, 성산1리 윤명순, 성산2리 최숙자, 야시대1리 김춘화, 야시대2리 오명숙, 주음치리 황소자, 군업1리 한영희, 군업2리 안순흥, 장평1리 윤정희, 장평2리 윤연희 회장 등이다.





◇화촌면 새마을부녀회 월례회의 모습

특히, 화촌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김려수 회장 등 18개리 새마을지도자 소속 회원이 새마을 정신에 따라 항상 협력하여 힘든 일을 덜어주고 있어서 새마을부녀회 활동이 수월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은순 회장은 "남편이 고맙다. 옆에서 항상 동행하며 격려한다. 그 덕분에 봉사하는 일이 힘이 들지 않는다. 집수리로 보금자리가 편안해지신 어르신들과 따뜻한 반찬을 맛있게 먹는 소외된 아이들의 미소를 접할 때 의욕이 넘친다."고 했다.

"어르신 보살펴드릴 때 보람 새마을부녀회 활동 만족"

화양강이 안아주는 화촌면은 산지와 평야가 적당히 어우러진 아늑한 마을로 형성되었다.

가리산에서 이어지는 산자락은 야시대리로 골짜기를 형성하여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삼포 구성포 등은 옛날 한강으로 이어지는 포구로 강촌의 수려함을 자랑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 성산과 백이동은 외지 소통이 원활한 이점으로 귀향 귀촌인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이런 지형을 살리는 환경정비를 위해 화촌면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꽃 심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군업리, 풍천리, 외삼포리, 성산리, 야시대리 등의 야외 꽃밭은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원에 살면서 전기공사 등의 사업 목적으로 화촌면을 방문했던 오명숙 총무(60세)는 화촌면 풍치에 반하여 8년 전에 귀촌을 하였다고 한다.

야시대2리에 전기공사 사업장을 차리고 정착하고 있다는 그는 "5년째 총무를 역임하고 있는데 되돌아보니 보람된 일들이 참 많았다. 어르신들께 김장을 담가드릴 때, 화목 준비를 해 드릴 때에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해진다. 그 모습에 도리어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고 했다.

화촌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새봄맞이 꽃 심기 준비를 하고 있다.

떼묵은 화단을 정리하고, 새 꽃 심기 구상을 하고,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으로 회원들이 하나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애향심을 발현하고 있다.

올해 70세가 되는 한 회원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다 외지로 나가 쓸쓸한데 새마을부녀회에 참여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움을 얻었다. 매번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 기다려진다. 옛날에는 가난을 극복해주던 새마을 운동이 이제는 취미활동이 되었다."고 했다. 화촌면 새마을부녀회는 오미크론 속에서도 굳건한 활동을 하고 있다.



허남영 기자(hny1985@naver.com)

CONTENTS

02 – 소개 : 경로당
03 – 모집홍보·교육 : 행복나눔 빨래방
04 – 지역소식 : 홍천 시골5일장
05 – 시사경제 : 화폐의 공장–은행의 탄생
06 – 교통안전 : 어르신 교통안전
06 – 복지관 소식
07 – 지원사업·홍보
08 – 보도자료
08 – 인생칼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소 개

경로당 이모저모

건강한 일상회복 공간으로의 경로당



◇신임경로당 회장들에게 등록증 수여

오늘날, 인구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여가시설 중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경로당을 단순히 휴게공간 또는 공동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경로당이 노인들의 건강한 일상회복과 건전한 취미생활 공간, 기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이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은 노인정이라고 불려지며 그 기능을 유지해 왔으나 1997년 이래로 노인정이 경로당으로 변경되었으며 경로당은 단순히 친목도모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의미와 기능이 매우 중요함을 더해 왔다.

이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사항이기도 하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36조 2항에 의거하여 경로당은 지역 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을 지원하며,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교환 및 기타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의 경로당은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도 돌봄과 여가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경로당 회원들이 운영하는 자치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년배 활동을 통한 다양한 정보공유, 이를 통하여 오늘날 노인들의 사회적 문제중의 하나인 고립과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에 의거하면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내의 주민등록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노인들이 동년배의 친구들과 함께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경로당이라는 공간에서의 잦은 만남을 통하여 동년배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함께 어우러져 건전한 취미 또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노인여가시설은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부터 그 기원 또는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다시말해 우리가 공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누각(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 정자(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집)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누각이라 함은 양반계급이었던 권력자 또는 선비들의 향연(香煙)의 공간이었으며 정자(亭子)라 함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던 애(愛)공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통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노인여가시설은 오늘날의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광복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노인정 또는 경로당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강원도 경로당 활성화방안 포럼자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로당의 숫자는 약 1만 7,000여개소에 달했으며 약 250만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1940년대에는 10%, 1950년대에는 8%, 1960년대에는 25%, 1970년대에는 약 51%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경로당은 1945년 광복전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양적인 팽창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경로당이 증가하게 된 근복적인 사회 배경은 오늘날 젊은 부부가 나이든 부모를 모시지 않고 사는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대화단절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노인들의 가정 내 또는 사회에서의 역할 감소 등으로 가정 밖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로당도 우리나라와 경제수준과 비슷한 노인시설과 비추어보았을 때에 노인시설로서의 충분한 공간부여와 함께 다양한 취미, 오락시설 겸비하여야 할 것이다.

홍천군 경로당

▶경로당지원

① 대　　상 : 205개소

② 사업내용 :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 도모

③ 지원내용

- 운영비 : 정회원수에 따라 차등지원(반기별)
- 냉방비 : 폭염기간(7~8월) 경로당별 정액지원
- 양곡비 : 정회원수 및 상시운영여부에 따라 차등지원(1,2,3,4,7,8,11,12월)
- 난방비 : 경로당에 난방비 지급

④ 읍면별 경로당 현황

연번	읍면별	개소수	회원(수)
1	홍천읍	48	2,881
2	화촌면	20	1,261
3	두촌면	16	873
4	내촌면	14	840
5	서석면	14	969
6	영귀미면	14	1,009
7	남면	22	1,193
8	서면	17	1,008
9	북방면	20	1,058
10	내면	20	826
	총계	205	11,918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

▶경로부

① 역　　할 : 홍천군 관내 10개 분회, 20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자원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② 주요업무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현황조사
- 경로당 당비스 프로그램을 통한 DB구축 및 홍보
- 경로당 이용노인 및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 분석
-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건강관리, 운동, 노후생활, 교육, 여가, 자원봉사, 공동작업장)
- 경로당내에서 노인 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타기관연계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
-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통한 노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 경오달 이용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검
- 경로당 이용노인대상 독거노인 생활교육 안내 및 협조

대한노인회 강원 홍천군지회, 2022년 신임경로당회장에 등록증 수여

대한노인회 강원 홍천군지회(지회장 이형주) 지난 1월 2022년 새로 선출된 읍면 신임 경로당 회장단에게 등록증을 수여했다.

이형주 지회장은 등록증을 전달하면서 신임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회원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남영 기자(hny1985@naver.com)

모집홍보·교육

행복나눔 빨래방

일자리와 복지가 합쳐진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





◇행복나눔 빨래방

- **행복나눔 빨래방이란?** 일자리와 복지가 합쳐진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 **주 서비스 내용은?** 독거어르신의 빨랫감을 수거해서 건조한 뒤에 배달까지 무상으로 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행복나눔 빨래방의 후원업체는?** 보건복지부, 강원도, 홍천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역본부, K-water소양강댐지사, (주)파로스, (주)BGF리테일, (사)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등 8개 업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행복나눔 빨래방을 통해 복지관 내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인력을 통하여 어르신의 안부 안전확인 등 어르신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 **행복나눔 빨래방 서비스이용 대상은?** 독거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영업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수거예약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 30분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수거물품은?** 오리털 이불을 제외한 침구류, 카페트류, 운동화 등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 033-432-8701~2

행복나눔 빨래방(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안전·소양·직무교육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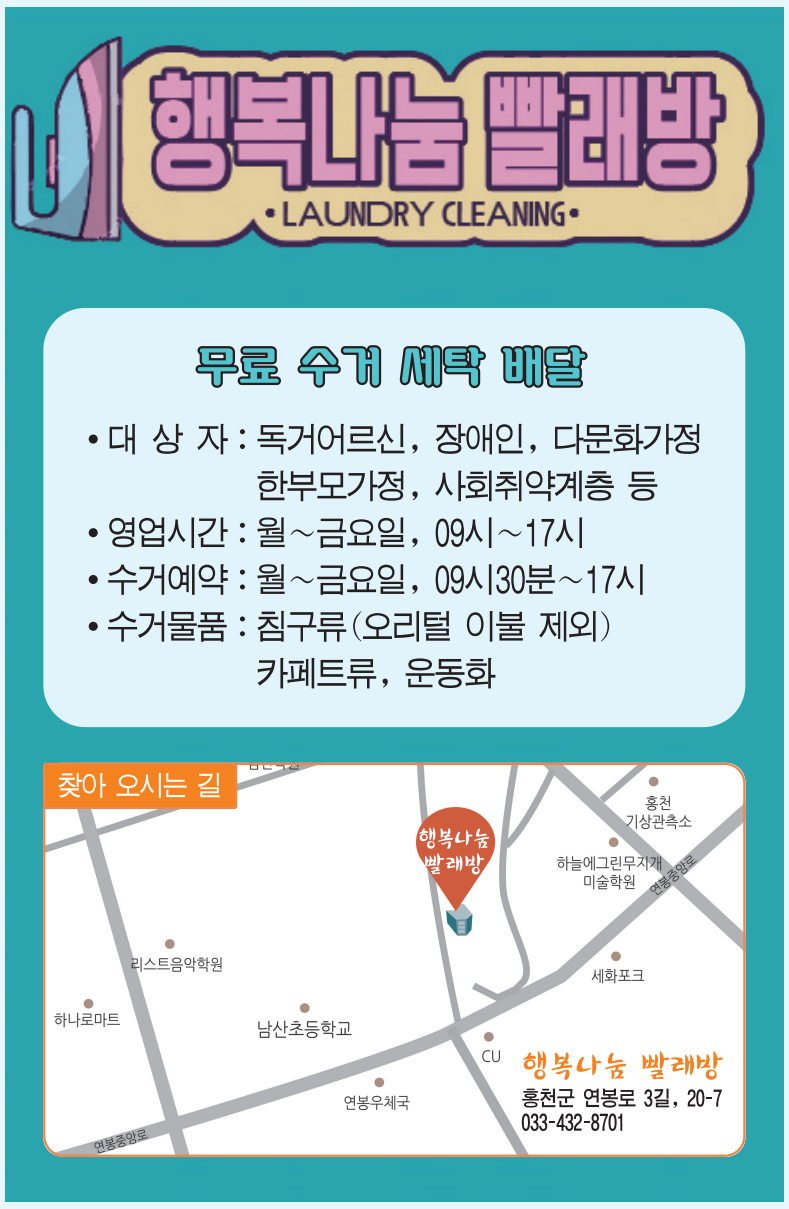
◇행복나눔 빨래방(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안전·소양·직무교육 모습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현윤재)에서는 2022년 2월부터 시작되는 행복나눔 빨래방 참여자 30명에게 안전·소양·직무교육을 8일~11일까지 4일에 거쳐 총 18시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일자리 참여에 있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사고 예방, 노인인권, 성희롱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현윤재 관장은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진행되는 행복나눔 빨래방 일자리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어르신들과 함께 노력해 나아가겠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직무에 어려움 없이 안전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나눔빨래방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이불, 운동화 등을 수거, 세탁, 배달하는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 강원도, 홍천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역본부, K-water 소양강댐지사, 파로스, (주)BGF리테일, (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총 8개의 업체가 후원하고 있다.



지역소식

홍천 시골5일장

사라져가는 가족 愛(애), 명절을 앞둔 시골 5일장에서

2022년 1월 26일 홍천 5일장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이모저모

2022년 2월 1일 얼마 전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대명절 구정이 지나갔다. 해마다 명절은 더욱 쓸쓸하고 허전하다.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 갈수록 어릴적 설 또는 추석 명절날에 대한 기억은 더욱 윤기가 나고, 애틋하고, 색동옷 저고리처럼 예쁘고, 그립기까지 하다. 때때옷(어린 아이의 말로 알록달록하게 곱게 만든 아이의 옷을 이르는 말), 꼬까옷 입고 아장아장 걸음마하거나 껑충거리면 흐뭇한 미소를 짓던 옛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연령보다 내가 더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도 눈물겹다.

명절이 오기 몇 달 전부터 그리운 피붙이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타지생활로 인해 도시에서는 쉽게 해 먹지 못하는 어머니가 해 주시는 고향 음식 생각으로 설레이고 설명절이 찾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옛 추억이 생생하다. 명절 전 날에는 귀성객들과 부딪치며 오랜 시간의 기차여행 이후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었던 부모와 형제들을 감격의 눈물로 해후,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에 다시 만나곤 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그리운 눈물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 온 동네 어느 곳에서도 들기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떡메를 치는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사람 사는 냄새가 어디론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서 알맹이 빠진 껍데기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가족모임의 이야기들을 보면

가족모임이 이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타인들의 모임처럼 여겨진다.

어느 누가 부자가 됐다. 아무개는 출세를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더라 등 각박한 세상 속의 고생스러운 이야기만 하거나. 이제... 제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어머니만 고생하시므로 지내지 말자 등. 정히 제사를 지낼 요량이라면 간편하게 제사음식을 구입해서 약식으로 하자! 라고 말하기도 한다. 제사는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그리워하고 그 분들의 한 평생 일생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날이 되기도 한다.

또한, "나는 왜 세상에 나왔을까?" 하는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고 헤어져 사는 식구들이 그날이나마 모여 부모 형제애를 복돋우는 날이라고 애기해도 마이동풍이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情(정)이 가득한 사랑. 애국심. 자연의 위대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사람이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해 사람을 사랑치 못하고 사람이 사는 모든 관계가 비틀어지고 미워하고 신뢰가 사라지고, 순서나 질서도 모른다. 그저 생존의 경쟁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가족 모두가 모이지 않고 그나마 몇몇이 모처럼 만에 모인 명절에도 각자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냥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어 가족들이 모여 있어도 남처럼 있다가 서먹하게 헤어질 뿐이다.

즉, 가족애(愛)를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 모임을 파한 이후, 다들 돌아간 뒤에는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로 마치 이상하게 돌아가는 듯 한 세상의 급변이 낯설고도 허무해 그 옛날 그 시절의 명절 때의 또렷했던 기억이 흑백 영화처럼 더 생생하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을까?"

혈연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촌들도 왕래가 없고, 형제자매도 이제는 내 가족처럼 손과 발이 멈칫하고, 고조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손자요, 부모에게는 똑같은 자식인데 휴전선 아래 분단되어 있는 남북. 이처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는고! 그것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싶어 명절엔 불효자는 웁니다 란 노래가 절로 떠오른다.

얼마 전에는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자카 등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지구상에 출현해 혼란이 있기는 했으나 모두 정복되었고 질병에 대한 걱정이 없는 듯 했다. 그러나 코로라19라는 명명된 바이러스는 전파력이나 상상력이 기존독감 바이러스와는 차원이 달랐고, 인간의 자만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세계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오히려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주요 통로가 되었고 어느 나라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로서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일하다. 인간이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려 누리던 풍요는 사회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하였고 곳곳에서 삶의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탄식과 비명이 들린다.

결국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무기력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경제 발전도 우주경쟁도 아닌 듯하다. 굶주림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새로운 것 좋은 것에 대한 탐욕은 동물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기게 하였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더군다나 오래 살다 보니 별일도 많아 그 코로나19 때문에 공적인 모임 금지명령이 내려 더욱 명절의 설레임은 없고 그때 그 시절 헐벗었어도 진한 형제애로 웃고 울던 그 옛날이 너무 생각난다.

우린 언제나 예전처럼 사람이 귀하고 아름답던 때로 돌아가 추석이나 설명절이 정말로 기다려지고 설레어지려나. 올 설명절은 추운날 밖으로 쫓겨난 아이처럼 서럽고 눈물나고 그때 그 설날이 그립고 그립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黑虎(흑호)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바람이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 naver.com)





시사경제 : 화폐의 공장

화폐의 공장 : 은행(銀行)의 탄생

1. 돈의 탄생
2. 돈과 자본주의
3. 현재의 돈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다. 즉 돈을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은행에 맡겨 이자를 얻는 수익방법을 말한다. 돈이 은행에 들어가면 더 많은 돈이 되어 나오는 은행의 마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제 은행의 탄생과 은행을 통해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야기를 해보자.

우선 현대적 은행의 역할을 정의한다면 은행은 예금과 적금의 수신업무, 자금 대출의 여신업무, 환업무, 보증업무, 유가증권투자, 간접투자증권판매, 신탁업, 카드업, 결재대행업무를 수행한다. 주된 업무는 예금과 대출의 이율차를 수익으로 얻는 예대마진일 것이다.

사실 채무, 채권의 역사는 기원전 5,000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채권자는 공모양의 점토판에 토큰 형식으로 찍어 넣어 빌려준 내용을 기록하였다. 기한이 되어 채무를 갚을 때 약간의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원시 형태의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의 은행 형식을 띤 것은 14세기 베네치아 환전업자들에 의해서이다. 베네치아는 당시 가장 번성했던 무역항중 하나로 여러 나라의 통화가 오가는 곳이어서 환전업자들이 필요했고 아울러 이들은 금을 보관하고, 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주로 반키에리(banchieri)라는 벤치에 앉아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은행(bank)의 어원이 비롯되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 가까운 은행은 1600년경 유럽의 금 세공업자로부터다. 금이 돈을 대신하여 거래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금은 무게와 부피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고, 중량과 순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불신이 많았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해 준 대상이 금 세공업자들이었다. 이들은 금을 보관할 튼튼한 금고가 있었고 금의 순도 또한 보증할 수 있었다. 금세공업자는 이렇게 맡긴 금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고 금을 보관하는데 대한 보관료를 받았다. 금 세공업자들이 써준 차용증은 시중에서 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금세공업자는 맡아둔 금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발급하여 훨씬 더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금 세공업자들이 이렇게 맡겨진 돈 보다 더 많은 차용증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람들이 금을 맡긴 이후 찾아 쓰는 비율은 통상 맡긴 금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나머지 90% 정도는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수익을 얻었다. 때문에 은행업무를 담당했던 금 세공업자들은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부를 쌓게 되었다. 금을 맡긴 사람들은 곧 자신의 금으로 대출하여 수익을 얻는 금세공업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이에 대한 무마책으로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저축에 대한 이자 개념이었다. 그런 한편 언제라도 금을 찾아올 수 있는 비율 10%라는 수치는 현재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되었다.

17세기는 유럽에서 전쟁이 빈발하던 시기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을 치렀는데 영국 왕실의 경우 1690년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였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 세공업자의 도움을 청했고, 금 세공업자는 재원을 조달하는 대가로 정부가 인정하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요구하였다. 1694년 민간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화폐를 독점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시초인 'Bank of England(영란은행)'의 탄생의 배경이 된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 가까운 은행은 프랑스의 '방크 제너랄', 후에 '방크 로얄'(왕립 은행)로써 1715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최초 은행은 1897년 한성은행(구 조흥은행)이 생겨났고, 1909년 중앙은행격에 해당되는 한국은행이 생겼으며 이것이 1950년 정식으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출범되었다.

사람들은 금 세공업자에게 맡긴 금, 아니면 은행에 맡긴 돈의 90%는 시중에 풀려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심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은행은 맡긴 돈의 10%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행을 믿지 못해 맡긴 돈을 찾겠다고 모두가 은행으로 달려가는 사태 즉, 뱅크런(bankrun)이 생겨난다면 아무리 건강한 은행도 이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들면, 어떠한 은행 한 곳이 뱅크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이는 다른 은행까지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전염성이 강한 불신이 된다. 역사적으로 많은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것은 1907년 발생한 니커보커 신탁회사(Knicherbocker Trust) 사태이다. 이 금융사의 소유주가 구리 투기에 실패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예금자들이 동시에 돈을 인출하여 몰려든 뱅크런이 발생했다.

물론 시중의 다른 은행에게까지 뱅크런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급기야는 JP모건의 막대한 보유현금으로 이 사태를 진정시켰다,

이것을 계기로 한편 경기침체로 JP모건을 중심으로 거대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설립하게 되는 해가 1913년이었다. 그 동안 미국에서도 중앙은행을 만들려는 시도는 많았으나 그 막대한 은행의 권력을 걱정한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던 터였다. 그리고 1929년 대공황을 맞아 연방준비제도(Fed)의 역할은 더욱 커졌으며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각 은행들의 산타크로스 역할을 자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종합금융회사의 연쇄 부도나 2011년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뱅크런이 대표적인 사태다.

은행이 대중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신용이 성숙된 현대 사회도 은행이 여전히 신뢰할 만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예·적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로 수익을 얻었던 은행은 그 수익의 구조를 다각화하면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거액의 투자수익을 안겨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의 탐욕과 팽창주의로 인해 또 다른 어떤 누군가는 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기도 한다. 은행이나 금융은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교통안전

어르신 교통안전

노인 교통문제

노인 문제는 근대적 사회변동과정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이 저하, 상실됨으로써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00년에 7.2% '고령화사회'로, 2017년에는 14%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20.8%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노인들의 최대 공포는 '지나친 장수'와 '노후 파산' 등이며, 정년퇴직 후 노후자금을 최소 40년분까지 준비해야 하는 시대라 좀처럼 은퇴를 하지 못한다. 20세기에 이른바 서구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노인의 탈가족화(脫家族化)로 인한 노후생활고의 증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노인복지 대책의 미흡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교통 복지제도는 지하철과 도시철도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겐 무료,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30% 할인(단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항공기 국내선 10%, 국내 여객선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을 생애 1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약 4%였던 1984년에 비해 2025년엔 20.3% 초고령 사회로 상황이 변해 전국 도시 철도는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태경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 지하철공사의 무임승차 합계손실은 연평균 5541억으로, 최근 5년간 무려 2조 7천억, 서울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조6839억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로 같은 기간 적자액의 약 53%로 절반이 넘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할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용을 연간 25~34%나 절감할 수 있다

도시 철도 노인 무임승차에 드는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이 훨씬 높다고 본다. 교통비 부담이 사라져 노인들의 이동과 활동이 장려되면서 여가·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나아가 고령자들이 흔히 겪기 쉬운 우울증이 감소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운전대를 잡는 노인이 줄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및 의료비가 감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에 이르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회원국 평균(14.8%)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지출 비중은 1.7%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은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투표권을 가진 강자로 단합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스스로의 몫이며 권리이자 의무이다.

김은기 기자(johnbbun12@naver.com)

복지관 소식

찾아가는 생신잔치

노인복지관, 홀몸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생신잔치" 진행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내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신잔치를 진행한다. 참여 대상자는 외부와의 단절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 44명이다.

지난 24~25일, 이틀에 걸쳐서 총 6명의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생신잔치를 진행했다.

"생신 축하합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어르신께 전달함으로써 어르신과 함께 자연스레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는 어느 겨울날 오후에 모처럼만에 찾아온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 덕분에 어르신 가정에 훈훈한 분위기를 물씬 풍겨내었다.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은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러,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냐!"며 고맙고 반가운 마음을 생신잔치가 끝마칠 때까지 소박한 웃음으로 표현해 주셨다. 또한, 자녀 손주의 사진을 꺼내어 보이시면서 보고 싶은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신잔치'는 홍천빵집에서 케익, 한림정에서 도시락 세트, 핑홍천점에서 양말, 그린플라워에서 반려식물을 후원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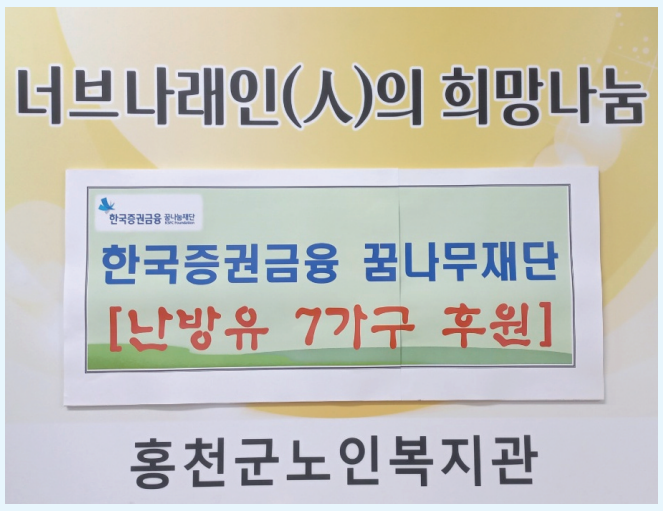
홍천군 노인복지관(관장 현윤재)는 "찾아가는 생신잔치 활동을 통하여 우리 마을, 우리 동네의 홀몸 어르신에게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복지관소식·홍보

노인복지관, 한국증권금융꿈나무재단 후원『사랑의 난방유 지원』





◇사랑의 난방유 지원하는 모습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한국증권금융꿈나무재단 후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재가어르신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사랑의 난방유를 지원하였다.

사랑의 난방유 지원 사업은 한국증권금융꿈나무재단에서 강원도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정후원하고, 한국노인복지관협회와 강원도노인복지관협회를 통해 전달되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관 맞춤 돌봄 및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홍천읍, 영귀미면, 내면, 두촌 등 홍천군 지역 곳곳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가정당 약 400 *l* 의 난방유를 총 7가정에 지원하였다.

후원을 받으신 한 어르신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겨울철 난방유를 구입했으나 건강 악화로 일자리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으로 추운 날씨에 난방비가 없어서 한파에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

어르신은 "보일러도 마음 편히 틀고, 따뜻한 물도 마음껏 사용할 있도록 기름을 넉넉하게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다.

평소에 경제적 부담으로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OOO어르신은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산골짜기 먼 지역에까지 직접 찾아와 난방유를 후원해 주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이번 설명절 기간에는 마음 편히 보일러를 돌릴 수 있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현윤재 관장은 "지역 내 재가어르신에게 올 겨울의 마지막 추위에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난방유를 후원해 준 한국증권금융꿈나무재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 모집

1. 모집기간 : 2022. 02~수시
2. 모집대상 : 코로나 백신 3차 이상 접종 완료자 연령제한 없음
   봉사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시간을 지켜주실 수 있는 개인/단체
3. 모집분야

분 야	내 용	시 간
경로식당	조리/배식/정리	월 1회 09:30
도시락배달	개인 차량을 이용한 도시락 배달 및 수거	주 1회 10:00
이미용	커트, 파마 전문기술 지원	조정 가능
전문교육 지도	프로그램 교육 및 지도	조정 가능
행사지원	행사보조/데코 등	수시
업무지원	행정업무 보조, 환경미화 등	수시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화장실수리, 도배, 장판 등	조정 가능

4. 활동 혜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 및 확인서
5. 신청 문의 : 홍천군노인복지관 이현정 주임(☎033-430-8714)

사례관리

분 야	시 간
사례관리	의뢰 및 발굴대상자 관리, 사례관리팀 운영 및 자문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천군 및 면단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홍천읍, 북방면)
집단상담	재가어르신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생신잔치	재가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신잔치
주거환경개선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난방지원	난방유, 연탄 등 공모 및 후원을 통한 난방비 지원
찾아가는 이미용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이미용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33-430-8718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구 분	내 용
참여대상	60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 홍천읍, 북방면 거주자
내 용	밑반찬 지원 (매주 2회: 화, 금) ※ 코로나 19상황에 따라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참가비용	없음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신청문의	홍천군 노인복지관 배영민 사회복지사(033-430-8718)

실버신문 기자 모집

구 분	내 용
참여대상	60세 이상 홍천군민 (신문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
활동내용	- 실버신문 기자단 : 홍천관내 소식 취재 / 원고작성 / 교정 ※ 월 1회 편집회의 참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실버신문 구독 문의 : 매월 실버신문 발행 후 우편발송 ※ 매월 정해져 있는 신문부수로 구독시점이 조정될 수 있음
참가비용	- 실버신문 기자단: 참가비용 없음(소정의 활동비 지급)
신청문의	홍천군 노인복지관 배영민 사회복지사(033-430-8718)

보도자료

수타사 신도회

수타사 신도회『정월대보름맞이 떡국떡 120가구 나눔행사』



◇수타사 신도회『정월대보름맞이 떡국떡 120가구 나눔행사』



2022년 2월 15일(화) 정월대보름을 맞아 '수타사 신도회'에서 떡국떡 120박스를 후원하였다.

후원한 물품은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말벗도 해 드리며 직접 전달해 드렸고, 때마침 고장 나 있던 방문도 보수작업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다.

수타사 신도회 오승훈 회장은 "임인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한 해와 더불어 조금이나마 따듯한 온정의 손길을 전달해 드리고자 대보름맞이 나눔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현윤재 관장은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고,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더욱 더 보살피고,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수타사 신도회는 평소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주거환경개선이나 후원품 전달등 다양한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홍천군노인복지관과도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달해 주신 떡국떡은 2.15(화)~16(수) 양일간 두촌면, 서석면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12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인생칼럼



석 도 익

소설가

메말라가는 눈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아닐 수 없다. 이 귀중한 눈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눈알 위쪽에 있는 누선(淚線)에서 나와 눈알을 적시거나 흘러나오는 투명한 액체상태의물질. 늘 조금씩 나와서 먼지나 이물질을 없애거나 각막에 영양을 공급해주며, 눈물로 눈을 촉촉하게 하여 움직이는데 마찰이 없도록 보호하며, 어떤 자극을 받으면 더 많이 분비된다. 특히 사람의 경우 좋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이별에 울고 감격에도 울 때에 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눈물이라고 하며, 이를 세는 단위는 눈물방울, 눈물줄기라고 한다.

고대 북유럽 원주민 켈트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가시나무 새가 있다. 이 가시나무 새는 일생에 단 한번 우는 새로 그 울음소리는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다고 한다.

그 새는 알에서 깨어나 자신이 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가시나무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 가시나무를 발견하면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에 몸을 날려 자신의 가슴에 찔러 넣고 붉은 피를 흘리며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고통을 참아가며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새소리보다 아름답고, 그 무엇도 따를 수 없는 절묘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죽어간다고 한다.

또한 짐승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고 남는 것은 숨기기에 급급한데 사슴은 오히려 울음소리를 높여 동료들에게 먹이가 있다고 알려주어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사슴이 먹이를 알려주는 울음소리를 녹명(鹿鳴)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은 즐거울 때는 미소를 짓거나 소리 내서 웃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 내어 울을 수 있다. 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정의 소리고 표정이다. 웃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울고 있는 모습은 보기 좋은 건 아니지만 눈물과 울음은 사람에게 웃음만큼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예로부터 남자는 평생 두 번 울어야 한다고 했다. 그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라고 한다. 여기에 운이 나빠서 나라가 망했을 때라면 세 번은 울어야 할 것이다.

태어날 때야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눈물은 부모님이 돌아가셔 장례를 치르면서 어느 누구에 눈치 볼 것도 없이 슬픔을 마음껏 쏟아 놓으며 울 수 있는 때이고 장소다.

옛 장례문화는 상가에서 망자의 죽음을 슬퍼할 울음소리가 나야 당연했기에 이를 형식에 맞추어 곡(哭)을 하며 울었고, 문상객도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나 근래에 이르러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의 곡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한도 많고 눈물도 많았던 지난 세월, 새도 운다고 했고, 닭도 울고 바람도 운다고 했듯이 슬픔이 많았던 시대를 지나 즐거움만 가득해 울음이 웃음으로 대체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너무나 각박해진 세상에 살기위해서 이기와 독심으로 자신을 무장하다보니 정은 가물어지고 눈물이 메말라져 안구건조증에 걸려있는 듯하다.

인공눈물이라도 넣으면 눈은 잠간 편하게 되겠지만, 흘리지 못해 눈물샘이 막혀버려 울지 못하는 가시나무새가 현재의 우리들이 아닌가 싶다.